

# 위젠(于堅) 시의 민간서사\*

박남용\*\*

## 目 录

1. 들어가는 말
2. 일상서사
3. 자연서사
4. 생태서사
5. 나오는 말

## 1. 들어가는 말

북쪽 베이징의 지식인 시가 창작으로 왕자신(王家新)과 시환(西川)이 있고, 서쪽 쓰촨 청두의 여성 시가 창작으로 자이융밍(翟永明)이 있다면 남쪽 윈난의 민간 창작으로는 위젠(于堅)<sup>1)</sup>이 있다. 중국의 현대시 지형도도 이처럼 지역과 풍격, 성별에 따라 다양한 시인들이 존재한다. 전통적으로 중국 시가는

\* 이 연구는 2016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네르바 교양대학 조교수

1) 위젠(于堅: 1954- ): 윈난 쿤밍(雲南 昆明)에서 출생. 1970년부터 1980년까지 공장에서 노동자로 일함. 1980년에서 1984년까지 윈난대학 중문과 한어어문학 전공. 졸업 후 윈난성 문련(文聯)에서 일함. 시집으로 『시 60수(詩六十首)』 『까마귀 한 마리에 대한 명명(對一隻烏鴉的命名)』 『하늘을 꿰뚫는 못(一枚穿過天空的釘子)』 『彼何人斯: 詩集 2007-2011』 등이 있고, 산문집으로 『야자껍질 수기(棕皮手記)』 『세상필기(人間筆記)』 등이 있음. 시선집 『위젠의 시(于堅的詩)』(人民文學出版社), 『기나긴 여행길에서(在漫長的旅途中)』(作家出版社) 등이 있음.

넓게 보아 시경과 초사로 대표되는 북방과 남방의 시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현대에 이르러서도 북방과 남방의 문학은 정치 문화의 중심지인 북방의 베이징과 경제 중심지인 남방의 상하이로 대변되어 이른바 경과와 해파 논쟁이 있었다. 문학의 유형과 풍격을 지역으로 일률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무리가 따를 지라도 중국의 큰 지리영토상 어쩔 수 없이 다양한 문화와 시가 유형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화대혁명이 끝난 이래로 오늘날의 당대시도 몽룡시나 제삼대(신세대), 후몽룡시, 인터넷시 등의 시인들이 대거 출현하며 80년대 이후의 중국 시단은 시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다양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여기에 중국 당대시에서 비교적 다양한 시적 경향을 보여주며 지식인의 무거운 사회적 책무를 보여주던 비장하면서도 영웅적인 몽룡시보다도 훨씬 더 일상생활에 밀착되어 다양한 시적 경향을 보여주는 제삼대가 등장하게 되었다. 새로운 당대 현실에 대한 시적 전유를 통하여 평범한 일상을 시적 대상으로 삼으며 인간의 생명과 개성을 노래하는 새로운 젊은 전위 시인들이 등장하였는데, 이른바 ‘그들(他們)’ 시인들이었다. 이들은 『他們』이란 시전문지를 중심으로 각 지역별로 이른바 시안의 덩당(丁當), 상하이의 루이민(陸憶敏), 난징의 한동(韓東), 푸저우의 뤼더안(呂德安), 쿤밍의 위젠(于堅) 등이 있었다. 이들은 비교적 주류문학에 대해 일정 정도의 방관자적 태도를 지니며, ‘시로 돌아가자’와 ‘개인으로 돌아가자’라는 시가 명제를 강조하며, 시인의 생명의식을 표현할 것을 제창하며 시가 작품 속의 ‘어감’을 강조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sup>2)</sup> 이 가운데에서도 윈난의 위젠은 개인의 간결한 구어화로 민간 창작의 시쓰기를 강조하고 있는데, 중국당대시가사에서 매우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며 중국 내외의 평론가들에게 크게 주목받고 있다. 본고에서는 위젠의 시를 통하여 윈난의 일상 풍경과 시가 미학을 살펴봄과 그의 시에 나타난 민간서사의 문제를 조명해 보고자 한다.

중국에서 위젠 시에 대한 연구는 상톈위엔(向天淵)과 자오링(趙玲)의 「于堅

2) 程光燁 著, 『中國當代詩歌史』,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03, 297-298쪽 참고.

『詩歌研究綜述』이란 글을 통해 대략적인 상황을 살펴볼 수 있다.<sup>3)</sup> 이 글에 의하면, 중국 내에서의 위젠 시가의 연구는 주로 민간창작(民間寫作) 입장의 연구, 일상생활 창작주장, 생태의식과 자연주제, 시의 서사성 및 구어화 전략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다. 중국 베이징대학의 홍쯔청(洪子誠)·리우딩한(劉登翰) 교수는 『中國當代新詩史』에서 위젠을 ‘그들(他們)’ 시인으로 분류하며 ‘신생대’ 시인으로 서술하고 있다. “위젠은 작품 속의 어감을 중시하였는데, 시가 속에서 생명은 어감으로 표현되고 어감은 시인의 정신적 호흡이라고 생각했다. 그의 시에서 제재는 일상생활을 묘사하는 서사적 요소가 많으며, 또 표면적으로 보면 냉정하고 건조하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서사창조를 사용하고 있다. 조용한 관조와 걱정, 냉담과 고통, 자연형태에 대한 묘사와 깊이 있는 체험·사색 등은 이들 작품이 가지는 내부 모순을 구성한다. 이 모순은 시인이 자신의 생활위치를 인지하고 있음에서 유래한다.”<sup>4)</sup> 이에 비해 천쓰허(陳思和)는 『中國當代文學史教程』에서 제20장 ‘문학 창작과 개인 창작 입장’에서 왕자신과 위젠을 나란히 놓고 분석하고 있다. 그는 왕자신을 “시인의 가장 순수하고 내재화된 요구에서 비롯된다는, 일종의 내면에 따른 창작”으로 여긴다면, 위젠을 “시가 은유 전통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햇빛 아래의 종려나무’에 대해 “시인 자신이 서 있는 역사 전통과 현실, 보편 관념에 대한 비판적 질문인 것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다.<sup>5)</sup> 이와 같이 중국 당대의 두 비평가이자 저명한 교수들의 평가를 볼 때, 위젠은 중국 당대 시가를 대표하는 시인으로 높게 평가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외의 학자 연구로 미국 하버드 대학의 줄리안 숄만(Jullian Shulman) 교수는 후몽룡시인 시환(西川)과 위젠을 상호 비교하며 몽룡시파의 길은 자아의식과 사명감에 대해 회의하는 가운데 성장하며, ‘중심(主流)’과 ‘주변(邊緣化)’로 나누며 위젠을 ‘민간’의 입장에서 심리적으로 지리적으로 주변화의 영역에 머무르고 있음을 강조하여 있다. 그리하여 창밖의 일상세계와 보통사람의 생활경험을

3) 向天淵·趙玲, 「于堅詩歌研究綜述」, 『河北大學學報』, 제41권 제6기, 2014년 11월

4) 洪子誠·劉登翰, 『中國當代新詩史』, 신아사, 2000, 460쪽.

5) 陳思和, 『中國當代文學史』, 문학동네, 2008, 504쪽, 508-509쪽.

의미있게 서술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sup>6)</sup>

본고는 위젠의 시 속에 나타난 민간서사의 입장에서 그의 시가 작품을 중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그의 시가 갖고 있는 중요한 장점은 원난의 일상 풍경과 자연풍경을 조화시키며 민간창작의 입장에서 형상화하며, 구어화된 어조를 이용하여 서사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원난의 구체적인 생활풍경이 시인의 시적 체험을 통하여 어떻게 서사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의 시에 나타난 주요한 미학적 문제들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 2. 일상서사

위젠의 시에서는 앞 세대의 몽롱시인들과는 다르게 시대현실에 대한 강한 외침도 없이 일상의 자잘한 이야기들이 시의 소재가 되어 나타난다. 일상생활에 대한 시인의 세심한 관찰과 체험은 그의 창작의 중요한 원형을 이루게 된다. 시인의 시가 창작의 원천을 자신이 살아가는 현실에 기반하여 주변의 인물 풍경이나 생활이 사소한 사건이나 사물의 변화 등에서 찾고 있다는 것은 당대 다른 시인들의 모습과는 매우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이다. 그만큼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이래 중국 사회는 개혁 개방 정책에 따라 다원화된 문화적 일상에 대한 추구하고 함께 시인들의 세계 인식에도 큰 변화가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 위젠은 2014년 그의 시와 사진 전시회를 개최하며 “시인은 그 자신의 언어를 창조해야만 하고, 그는 자신의 혀로 말해야만 하며, 시인은 그의 언어를 통해야만 그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sup>7)</sup> 위젠은 이처럼 자신의 언어를 창조하기 위해 시대적 변화의 흐름에 발맞추어 원난의 일

6) Jullian Shulman, 「于堅: 一個詩人的民間立場」, 『青年作家』, 2007년 8기. 向天淵·趙玲, 「于堅詩歌研究綜述」, 『河北大學學報』, 제41권 제6기, 2014년 11월, 13쪽.

7) 于堅, 『36幅照片36首詩』, 文達畫廊, 2014, 표지 해설.

상적 삶의 풍경을 노래하며 자신만의 독특한 시세계를 창조해 내고 있다. 린산원(林善文)은 “위젠은 20세기 후반 중국 선봉시인의 중요한 대표시인이라고 공인되었는데, 그의 시는 주체의 세속화와 언어의 평민화로 중국 당대시단의 독자적 일파를 이루면서 세계 시가계의 주목을 받았다.”고 위젠의 시세계를 평가하였다.<sup>8)</sup> 그리하여 그의 초기의 대표적인 작품들을 보면 주체의 세속화와 언어의 평민화를 지향하는 일상세계에 대한 관찰과 체험이 잘 드러나고 있다. 그리하여 그의 시 제목들은 「작품51호(作品51號)」, 「작품 57호(作品57號)」…같은 연작시의 형태를 띠거나 「상이제(尙義街6號)」 같은 주소를 제목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친구나 사람을 등장시키는 작품들 「신장으로 가는 주사오양을 전송하며(送朱小羊赴新疆)」, 「뤄자성(羅家生)」 등의 시를 찾아 볼 수 있다. 이처럼 그의 시들은 제목을 보고서도 쉽게 그의 창작 방식과 형태, 그리고 시가 의식을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다. 먼저 「작품 51호(作品51號)」를 살펴 보도록 하자.

“작년 나는 항상 거울을 보고 시계를 보고 가죽구두를 닦고 새 셔츠를 입었다 / 『청년심리학』을 읽으며 한 쪽의 작은 신문을 읽었다 / 기타를 타고 롬바 춤을 추고 유행가를 부르며 수업 듣는 등 모두 했었다 / 했었지만 깨끗이 잊어버렸고 다만 그녀는 나를 밤마다 걱정하였다 / 그녀는 어려서 나와 함께 돌장난을 하며 내가 이층집 베란다 아래에서 오줌 누는 것을 본 적 있지 / 그녀는 자라서 키도 크고 아름다웠다 / 철사 같은 작업석탄더미 같은 생활 기저귀 같은 가정 가운데에서 해방된 / 그녀의 가슴들도 정말 컸다 / 도시 안에서 정말 가끔 만났다 / 그녀가 긴 머리를 빗질하는 것도 그해 정말 드물게 보았다 / 우리는 미안했는지 마음이 뛰고 인사도 없었지 / 머리를 쳐들고 머리를 평평하게 했다 / 나는 날마다 그녀를 만나 불을 쬐며 구두 밑창을 박고 채소를 절이고 언니의 아이를 안고 나무문쪽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 그녀는 정말 부드러웠다 / 무얼 하든지 부르고 무엇을 부드럽게 하며 그녀는 초등학교에서 가서 단(團)에도 들어가지 않았다 / 그녀는 말했다 내가 장래 많은 시를 써서 대시인이 될 거라고 / 그녀는 말했다 정말 나를 흠모했다고 / 그녀는 아주 자신을 낮추었다 / 그녀가 마당에서 한 남자가 다른 여자에게 키스하는 것을 TV 보는데 가까

8) 林善文, 「大地的舌頭」, 于堅, 『36幅照片36首詩』, 文達畫廊, 2014, 표지 해설.

이 다가왔지 /나의 손은 불타오르며 그녀의 손에 키스했지만 그녀는 아프다고 움츠렸다 /움츠리고 극이 끝나자 그녀 언니가 돌아가서 창문을 닫고 문을 닫고 불을 켜고 불렀다 /그녀는 불을 켜러 가며 나는 청마지를 입고 머리카락을 흐트러뜨리며 여학생을 따라 디스크를 추었고 /추다가 피곤하면 우리는 앉아 숨을 헐떡였다 바람이 우리 어깨 아래 협곡에서 불어오면 정말 시원하게 흘러내렸다 /그녀는 사드 푸쉬킨 프로이드를 알았고 피카소를 좋아했다 그녀는 말했다 그녀의 우울은 부채꼴이라고 /나도 아주 우울했다 그녀는 피카소를 좋아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무슨 의미인지 /이것들은 모두 과거의 일들이다 과거의 일은 달콤했고 슬렸고 고통스럽고 미칠 듯한 일이었다 /피카소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주 많고 많다 어렸을 때의 이웃집은 영원히 그녀 한 사람 뿐이었다 /아 그녀 혼자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결혼하는 그날 나는 가지 않았다 이 시대가 정말 사람을 혼란스럽게 했고 땅은 머리를 잃어버렸어도 피카소를 얻을 수 없었다 /얻을 수 없었다 얻을 수 없었다 나는 예전처럼 거울을 보고 시계를 보고 가죽구두를 닦으며 가장 유행하는 노래를 콧노래 불렀다”<sup>9)</sup> (1984년)

이 작품은 일상의 자질구레한 일들을 시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거울 보고 시계 보고 가죽구두를 닦고 셔츠를 입고 신문을 읽고 유행가를 부르는 일 등의 일상의 작은 일들 속에서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일상 속에서 그녀와의

9) “去年我常常照镜子看手表擦皮鞋买新衣 /我读《青年心理学》读一角一张的小报 /谈吉他跳伦巴唱流行歌听课等等都干过了 /干过了忘得干干净净只有她叫我夜夜伤心 /她从小和我一起玩石头见过我在二楼的窗台撒尿 /她长大了长高了长美丽了开放在那些铁丝煤堆尿布中间 /她的胸脯真高啊在城里真少见她梳着长辫子这年头真少见 /我们不好意思啦心跳啦不打招呼昂着辫子和平头 /我天天见她捂火纳鞋底脂冬菜抱着姐姐的娃娃站在木门边 /她真温柔啊叫干什么就温柔地干什么她上过小学没有入团 /她说我将来一定会当大诗人写好多诗她说我真羡慕她很自卑 /我紧挨着她在院坝里看电视看一个男人吻另一个女人 /我的手燃烧着去舔她的手但她一疼就缩开了 /缩开了剧终她姐姐叫她回家关窗子关门捂火 /她去捂火我跟着穿牛仔褲披头发的女生跳迪斯科 /跳累了我们坐着喘息风就从我们肩头下的峡谷中流掉了真凉快 /她知道萨特普希金知道弗洛伊德她喜欢毕加索 /她说她的忧郁是扇形的 /我也很忧郁她喜欢毕加索是什么意思啊是什么意思啊 /这些都是去年的事情过去的事情甜蜜忧伤痛苦疯狂的事情 /喜欢毕加索的人多得很多得很小时候的邻居永远只有她一人 /啊 只有她一人 /她结婚那天我没有去这年代真令人迷惘我失去了辫子也得不到毕加索 /得不到得不到我照旧照镜子看手表擦皮鞋哼最流行的歌” 于堅, 『于堅的詩』,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2000, 247-248쪽.

만남을 서술하고 있지만 진지하기보다 유머적이고 해학적이 가깝다. 그녀는 어려서 돌팔매질도 하고 내가 오줌을 누는 장면도 보았던 사이였지만 성인이 되어 도시 안에서 살아가는 아가씨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학교도 가보지 못한 그녀가 대시인이 되겠다고 푸쉬킨, 프로이트를 읽고 피카소를 좋아한다. 하지만 그녀는 결혼을 해서 떠나갔고 그녀의 결혼식에도 가지 않고 주인공 화자는 여전히 일상의 작은 일에 몰두하고 있다. 한 편의 시를 구성하는 방식이 기존의 다른 시인들이 진지하게 은유와 상징을 동원하며 멋진 자신만의 세계를 창조하는 방식과는 거리가 멀다. 시에 동원되는 일상의 소재들을 찾아 은유를 거부하며 자연스럽게 산문적 시를 보여주는 듯한 방식은 이전의 시적 경향과는 매우 차이가 난다. 이러한 시적 경향은 「상이제 6호(尙義街6號)」에 가셔도 여전히 분명하게 드러난다.

“상이제 6호 /프랑스식 노란 집 /라오우(老吳)의 바지가 이층에 널려 있다 /소리를 지르자 가랑이 아래로 안경을 낀 머리가 뚫고 나온다 /옆집 화장실 /매일 아침 긴 줄을 서서 /우리는 왕왕 저녁에 왕립하여 /담뱃갑을 열고 입을 벌리고 /등을 켜다 /벽에 위젠(于堅)의 그림을 못 박아도 /여러 사람들은 괜찮다고 여기지 않는다 /그들은 반·고흐만 알뿐이다 /라오카(老卡)의 셔츠는 걸레와 뒤섞였다 /그는 노란 책을 펴고 /나중에 그는 연애했다 /항상 쌍쌍이 와서 /여기에서 말다툼하며 시시덕거렸다 /어느 날 그들은 이별을 선포했다 /친구들이 한바탕 웃으며 아주 즐거워했다 /다음날 그는 결혼 청첩장을 보내왔다 /모두 웃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연회장으로 갔다 /테이블에는 항상 주샤오양(朱小羊)의 원고가 펼쳐져 있었는데 /그 글자들은 들쭉날쭉했다 /이 잡종경찰은 서서 우리를 노려보아 /두 붉은 실눈을 마주했다 /우리는 할 수 없이 몽롱하게 말하며 /유행하는 시처럼 /리보(李勃)의 슬리퍼가 페이자(費嘉)의 가죽신발을 누르고 있다 /그는 이미 이름을 날렸다 란피(藍皮)회원증을 가지고 있다 /그는 항상 위쪽에 누워 /우리가 어떻게 신을 신어야 할지 알려 주었다 /어떻게 소변보고 어떻게 반바지를 빨고 /어떻게 배추를 볶고 어떻게 잠자고 등등 /82년에 그는 베이징에서 돌아왔는데 /외투는 과거보다도 더 중후해졌다 /그는 문단 내막을 말하며 /말투가 작가협회 주석 같았다 /차물은 라오우(老吳) 것 전자시계는 라오우 것 /마루는 라오우 것 이웃집은 라오우 것 /며느리는 라오우 것 웨이수평(胃舒平)은 라오우 것 /가래담배

공기친구는 라오우 것 /라오우의 펜은 책상에 숨어 있고 /드러난 것은 아주 적었다 /기너도 없는 도시 /남자 사내아이들이 여자를 노련하게 말하며 /우연히 치마 입을 사람들이 들어오면 /모두가 손잡이를 잘 두드리고 /그해 우리는 치마를 뚫고 들어가기를 갈망했어도 /감히 허리를 구부리지 못했다 /위젠(于堅)은 아직 이름을 날리지 못해 /낮은 신문지 위에 /매번 훈계했다 /그는 의미심장한 필명을 많이 썼다 /어떤 사람은 모두 그를 매우 두려워했다 /그는 모처에서 일했다 /“그가 와서 마음을 써도, /우리는 아무 것도 말하지 않으리라!” /어떤 날은 날씨가 나빴는데 /생활은 항상 재수가 없었다 /우리는 페이자(費嘉)의 최신작을 공격하며 /주샤오양을 대사라고 부르게 했다 /나중에 이 양(羊)은 돈지갑을 꺼내었다 /즈즈우우 그 말이 빛났다 /바장꾸이(八張嘴)는 곧바로 미소 지으며 일어섰다 /그때는 지혜의 시대이다 /많은 대화가 만약 녹음된다면 /명저를 낼 수 있다 /그때는 혼란의 시대이다 /많은 얼굴이 여기에 나타났다 /오늘 그대가 도시로 가서 물어 보길 /그들은 모두 명정이 드높다 /밖에 가랑비가 내리고 있다 /우리는 거리의 /텅 빈 화장실을 나왔다 /그는 처음 홀로 사용했다 /사람들은 결혼하려고 /사람들은 이름을 날리려고 /사람들은 서부로 가려고 한다 /라오우도 서부로 가려고 한다 /모두 그를 욕하며 억지로 사내대장부인 체한다 /속으로는 무서워 불안해하면서 /우원광(吳文光) 그대는 떠나갔다 /오늘밤 나는 어디로 가서 밥벌이 할까 /은혜와 원한 큰소리로 떠든다 /모두 끝내 헤어졌다 /빈 마루만 남았다 /한 장의 레코드판처럼 더 이상 울리지 않는다 /다른 곳에서 우리는 항상 상이제 6호를 들어 /아주 여러 해 뒤의 어느 날 /아이들이 참관하러 올 것이라고 말한다”<sup>10)</sup>(1984년 6월)

- 10) “尙義街六号 /法國式的黃房子 /老吳的裤子晾在二樓 /喊一聲 膀下就鉗出戴眼睛的腦袋 /隔壁的大廁所 /天天清早排着長隊 /我們往往在黃昏光臨 /打開烟盒 打開嘴巴 /打開灯 /牆上釘着于堅的畫 /許多人不以爲然 /他們只認識凡高 /老卡的襪衣 揉成一團抹布 /我們用它拭子上的果汁 /他在翻一本黃書 /后來他戀愛了 /常常双双來臨 /在這里吵架 在這里調情 /有一天他們宣告分手 /朋友們一陣輕鬆 很高興 /次日他又送來結婚的請柬 /大家也衣冠楚楚 前去赴宴 /桌上總是攤開朱小羊的手稿 /那些字亂七八糟 /這個雜种警察一樣盯牢我們 /面對那双紅絲絲的眼睛 /我們只好說得朦朧 /李勃的拖鞋壓着費嘉的皮鞋 /他已經成名了 有一本藍皮會員証 /他常常躺在上邊 /告訴我們應怎樣穿鞋子 /怎樣小便 怎樣洗短褲 /怎樣炒白菜 怎樣睡覺 等等 /八二年他從北京回來 /外衣比過去深沉 /他講文壇内幕 /口气像作協主席 /茶水是老吳的 電表是老吳的 /地板是老吳的 鄰居是老吳的 /媳婦是老吳的 胃舒平是老吳的 /口痰烟頭空气朋友 是老吳的 /老吳的筆躲在抽桌里 /很少露面 /沒有妓女的城市 /童男子們老練地談着女人 /偶爾有裙子們進來 /大家就扣好紐子 /那年紀我們都渴望鉗進一條裙子 /又不肯彎下腰去 /于



이 시는 위젠의 초기시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많은 평론가들에게 주목을 받았던 작품이다. 위젠이 시를 쓰는 방식은 과거의 몽롱시인처럼 시대와 역사를 생각하며 지식인적 사명감을 가지고 시를 쓰는 것이 아니다. 일상의 작은 일들, 친구들의 이야기, 상이제 6호에서 떠들며 놀던 청년들의 집합처인 일상의 작은 집의 이야기를 노래하고 있다. 시인과 생활의 이야기, 이방인과 같은 의식, 그리고 이것을 풀어내는 일상의 산문적 언어들로 인해 시는 평담의 미학으로 나아가고 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소박한 창작태도를 보여주는 위젠의 이러한 시가 창작 방법은 그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이러한 시를 읽으면, 피로했던 마음이 편안해지며 친구 사이에 아무 거리낌 없는 정답처럼 평등하면서 소박한 창작태도와 인격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sup>11)</sup>

이외, 위젠의 시에서는 친구들에 대한 시나 가까운 이웃들에 대한 시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그의 시 「먼 곳의 친구여(遠方的朋友)」에서는 “먼 곳의 친구여 /그대의 편지를 읽었네 / (생략) /먼 곳의 친구여 /친구를 사귀는 게 쉽지 않는데 /만약 그대가 우리 집 문을 발로 차며 /“나 아무개야!”라고 큰 소리로 외친다면 /나도 할 수 없이 한 마디 하리라 /난 위젠이야”<sup>12)</sup>라고 친구와의 만남을 생각하며 소통의 가능성을 열고 있고, 「어떤 친구가 먼 곳에서 오는데

堅還沒有成名 /每回都被教訓 /在一張旧報紙上 /他寫下許多意味深長的筆名 /有一人大家都  
很害怕 /他在某某處工作 /“他來是有用心的, /我們什麼也不要講!” /有些日子天气不好 /生  
活中經常倒霉 /我們就攻擊費嘉的佳作 /稱朱小羊爲大師 /后來這只手摸摸錢包 /支支吾吾 閃  
爍其詞 /八張嘴馬上笑嘻嘻地站起 /那是智慧的年代 /許多談話如果录音 /可以出一本名著 /  
那是熱鬧的年代 /許多臉都在這裡出現 /今天你去城里問問 /他們都大名鼎鼎 /外面下着小雨  
/我們來到街上 /空蕩蕩的大廁所 /他第一回獨自使用 /一些人結婚了 /一些人成名了 /一些人  
要到西部 /老吳也要去西部 /大家罵他硬充漢子 /心中惶惶不安 /吳文光 你走了 /今晚我去哪里  
混飯 /恩恩怨怨 吵吵嚷嚷 /大家終於走散 /剩下一片空地 /像一張空唱片 再也不響 /在別  
的地方 /我們常常提到向義街六號 /說是很多年后的一天 /孩子們要來參觀” 于堅, 『于堅的詩』,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2000, 250-253쪽.

11) 陳超, 『20世紀中國探索詩鑒賞(下)』, 石家莊, 河北人民出版社, 1999, 843쪽.

12) “遠方的朋友 /您的信我讀了 / (생략) /遠方的朋友 /交个朋友不容易 /如果你一脚踢開我的門  
/大喝一聲“我是某某!” /我也只好說一句: /我是于堅” 于堅, 『于堅的詩』, 北京, 人民文學出版  
社, 2000, 206-207쪽.

(有朋從遠方來)에서는 “그대는 황허를 가로질러 나를 찾아왔는데 /그대는 남쪽 지역 전체를 지나 왔다 / (생략) / 덩당(丁當) 그대의 이름은 정말 멋있으니 /오늘 나는 돈을 가져오지 않았는데 /다음에 내가 순청제(順城街)에 가서 /쌀국수를 사주지”<sup>13)</sup>라고 친구의 실명을 언급하며 멀리서 찾아오는 친구를 반갑게 맞아주고 있고, 「신장으로 가는 주샤오양을 전송하며(送朱小羊赴新疆)」에서는 “그는 사람들 무리 속에서 밀치고 나와 /시베이로 가는 기차에 뛰어올랐다 / (생략) /주샤오양 /“저 아득한 곳에 /아름다운 아가씨 있겠지” /열차는 하늘가 밖으로 내달리는 그대를 따라 /우리 같이 집 있는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살며시 흩어져 간다”<sup>14)</sup>라며 먼 곳으로 떠나가는 친구를 전송하는 시를 쓰기도 한다. 이처럼 위젠 시인은 자신의 일상생활 속에서 중요시 여기는 친구들에 대한 시를 지속적으로 창작하며, 실제 인명을 시 속에 드러내며 자신의 삶에 대한 중요한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위젠의 이러한 일상생활의 면면에 대한 세밀한 관찰과 체험을 바탕으로 시를 창작하는 시세계는 그의 민간서사의 중요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 3. 자연서사

위젠 시의 민간서사를 서술하는데 있어 두 번째 특징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자연서사에 대한 측면이다. 그 이유는 위젠의 창작세계로 볼 때 원난의 자연풍경과 고향풍경을 배경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린산원은 “위젠은 애정, 혈육 간의 정, 친구, 나무, 돌, 표범을 위해 창작하였다. 그가 주목한 것은 다

13) “你橫渡黃河來找我 /你穿過整個南方 / (생략) / 丁當 你的名字真響亮 /今天我沒帶錢 /下回我請你去順城街 /吃過橋米線” 于堅, 『于堅的詩』,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2000, 211-213쪽

14) “他從人群中擠出來 /跳上開往大西北的火車 / (생략) /朱小羊 /“在那遙遠的地方 /有位好姑娘…” /列車載着你跑向天邊外 /我們這群有家的人 /在人海中悄悄走散” 于堅, 『于堅的詩』,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2000, 214-2215쪽.

리 한 쌍과 길, 나는 새와 하늘, 물고기 한 마리와 연못, 강물, 호수, 그리고  
 대한의 관계---이 모든 것이 바로 대지와 고향으로, 위젠의 사진과 시는 우  
 리 생활과 일상의 시선을 너무 멀리 떠날 수 없었다. 위젠의 작품은 대지에  
 근원을 두며, 바로 아래의 생활 도양에 뿌리 내리고 있다. 그것이 도달하고자  
 하는 보통 사람들의 평담한 일상생활 아래에 숨기고 있는 개인 영혼의 대해  
 였다. 그의 ‘시’는 개방적이고 실재적이고 아름답고 선을 지향하며 통달하였  
 고, 인간의 생명이나 내심의 체험과정, 그리고 인간의 생존 상태와 서로 통하  
 는 세계였다.”<sup>15)</sup>고 서술하였다. 이러한 평가처럼 그의 시의 근원적 고향은 바  
 로 자연과 대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윈난은 지역적으로 자연풍광이 매우 아  
 름다운 곳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여행지 중의 하나이다. 자연적으로 위젠  
 시인의 시 세계 속에는 아름다운 자연풍경을 노래한 시들이 상당히 많이 있  
 다. 예를 들면 「작품 57호(作品57號)」, 「고산(高山)」, 「강(河流)」 등이 있다.  
 우선 「작품 57호(作品57號)」 작품을 보도록 하자.

“나와 웅장한 산봉우리는 여러 해를 함께 살았었지 / 그 산봉우리들 밖은  
 매의 영공 / 그것들은 나와 매에게 더욱 더 접근하여 / 내가 첩첩 산중의  
 바위들을 기어오른 적이 있다 / 고향이 한 줄기 밥 짓는 연기에 지나지 않  
 음을 발견하고 / 수많은 고산들이 심오한 푸른 하늘 아래 용솨음 쳐서 / 수  
 많은 산과 골짜기를 마주하고 나는 큰소리로 소리 질렀다 / 자신의 메아  
 리를 듣고 싶었지만 바람에 묻혀버렸다 / 바람은 나를 지나가며 수많은  
 산언덕을 지나갔다 / 태양이 빛을 잃고 매가 내려와도 산은 움직이지 않  
 는다 / 나는 푸른 바위들에 꼭 붙어 / 한 줄기 바람에 구부러진 흰플처럼  
 떨고 있었다 / 나중에 어두운 밤이 내려오며 / 못봉우리들이 위대한 교부  
 (敎父)처럼 / 나를 침묵하게 한다 한 줄기 달빛을 따라 / 나는 고산을 내려  
 간다 / 나는 강이 가장 깊은 곳을 안다 / 나는 고산이 가장 험준한 곳을 안  
 다 / 나는 침묵의 힘을 안다 / 산봉우리들이 나를 만들었고 / 청동기 같은  
 산봉우리들이 / 나로 하여금 영원히 높은 곳에 대해 / 첫사랑의 걱정을 품  
 게 하며 / 나로 하여금 영원히 묵묵히 오르는 것을 좋아하게 하며 / 기세당  
 당한 풍경을 좋아하게 하며 / 산언덕이 없는 곳에서 / 나도 세상을 내려다  
 본다”<sup>16)</sup>(1984년)

15) 林善文, 「大地的舌頭」, 于堅, 『36幅照片36首詩』, 文達畫廊, 2014, 표지 해설.

이 작품은 그의 작품집 『于堅的詩』의 첫 번째에 소개된 시이다. 그만큼 이 시인이 이 작품에 대한 애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무엇보다 원난의 고산 풍경이 잘 소개되어 있다. 높은 산들이 연이어 있는 원난의 자연 속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시인의 정체성이 잘 드러나 있다. 고산 준봉들의 틈 속에서 자신만의 메아리를 지르고 싶지만 바람 속에 묻혀 소리를 낼 수 없다. 결국 자신이란 존재 역시 자연의 일부가 되어 매, 바람, 바위, 풀, 산봉우리, 강처럼 함께 살아가는 존재임을 확인하게 된다. 이러한 고향의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풍경 앞에서 시인들은 침묵하게 된다. “나는 고산을 내려 간다 / 나는 강이 가장 깊은 곳을 안다 / 나는 고산이 가장 험준한 곳을 안다 / 나는 침묵의 힘을 안다”<sup>17)</sup>며 고산과 강물 앞에서 자연의 대지를 품고 있는 시인의 깊은 사색의 순간을 떠올리게 된다. 이러한 자연과 고향의 품속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시인의 그윽한 눈길 속에서 시인의 시적 정감은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린센즈(林賢治)는 위젠을 민간창작의 증견으로 보며 그의 시와 붉은 대지와와의 친근성을 강조하고 있다.<sup>18)</sup> 그는 「고산(高山)」과 「강물(河流)」이란 작품을 예로 들고 있다.

“고산을 그림자를 세상에 던진다 / 가장 키가 큰 남자도 작아 보인다 / 고산 속에서 사람은 반드시 성실해야 한다 / 그가 영웅들 앞을 걸어가는 것을 사람은 느꼈다 / 그는 말하지 않는다 / 그는 힘을 잃을까 두렵다 / 성실

16) “我和那些雄偉的山峰一起生活過許多年頭/ 那些山峰之外是鷹的領空/ 它們使我和鷹更加接近/ 有一回我爬上岩石墨墨的山頂/ 發現故鄉只是一縷細細的炊烟/ 無數高山在奧藍的天底下洶涌/ 面對千山萬谷 我一聲大叫/ 想聽自己的回音 但它被風吹滅/ 風吹過我 吹過千千萬萬山岡/ 太陽失色 鷹翻落 山不動/ 我顫抖着貼緊發青的岩石/ 就像一根被風刮彎的白草/ 後來黑夜降臨/ 群峰像一群偉大的教父/ 使我沉默 沿着一條月光/ 我走下高山/ 我知道一條河流最深的所在/ 我知道一座高山最險峻的地方/ 我知道沉默的力量/ 那些山峰造就了我/ 那些青銅器般的山峰/ 使我永遠對高處懷着一種/ 初戀的激情/ 使我永遠喜歡默默地攀登/ 喜歡大氣磅礴的風景/ 在沒有山岡的地方/ 我也俯視着世界” 于堅, 『于堅的詩』, 人民文學出版社, 2000, 332쪽. 3-4쪽.

17) “我走下高山/ 我知道一條河流最深的所在/ 我知道一座高山最險峻的地方/ 我知道沉默的力量”

18) 林賢治 著, 『中國新詩五十年』, 瀛江出版社, 2011, 212쪽.

은 새까만 바위돌 같다 /한 마리 매는 한 그루 뾰족한 잎의 어린 나무  
/이렇게 그대는 비로소 고산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 /산 정상에서 걸으며  
/폭풍우 홍수와 번개는 /고산 속 불후의 힘 /그들은 고산을 파괴하고 /고  
산도 그들을 파괴하고 /그들은 고산을 창조하고 /고산도 그들을 창조하  
고 /고산 위에 사람은 고독한데 /평지 위에 있어야만 비로소 밥 짓는 연  
기 가득하다 /고산 속에서 수병은 인내심이 있어야 하리라 /파도가 고요  
하지 않을 것이며 항구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흔들리는 사이 /그대는  
이미 산정상을 오르거나 /심연 속으로 빠져 들어간다 /한평생 지평선을  
볼 수 없고 /멀리 보려면 높은 곳을 향해 올라야 한다 /하지만 산봉우리  
에서 그대가 보는 것은 여전히 산봉우리 /더 높은 무수한 산봉우리 /그대  
는 침묵하리라 할 수 없이 앞으로 가리라 /목적지는 불분명하다 /윈난(雲  
南)에서 수많은 보통 남녀들이 있는데 /일생 동안 웅장한 수많은 산봉우  
리를 거쳐갔고 /마지막에는 그 돌들 속에 묻히리라”<sup>19)</sup>(1983년)

이 시에는 고산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 폭풍과 홍수와 번개가 치는 높은 고산 속에서 인간들은 수많은 인내심을 갖고 자연 앞에서 침묵하며 심연의 바다로 빠져 들어간다. 위대한 자연 앞에서 인간은 너무나 나약한 존재임을 알기에 시인은 침묵할 수밖에 없다 아울러 윈난의 젊은 청년 남녀들도 고산 봉우리를 거쳐 결국에는 그 돌들 속에 묻혀 죽음을 맞이해 줄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자연 속에서 태어나 성장하며 죽으며 자연과 하나 되는 인간의 삶을 잘 조명하고 있다. 다음은 「강물(河流)」란 작품을 보도록 하자.

19) “高山把影子投向世界/ 最高大的男子也显得矮小/ 在高山中人必须诚实/ 人觉得他是在英雄们面前走过/ 他不讲话 他怕失去力量/ 诚实 就像一块乌黑的岩石/ 一只鹰 一棵尖叶子的幼树 / 这样你才能在高山中生存/ 在山顶上走/ 风暴 洪水和闪电/ 都是高山中不朽的力量/ 他们摧毁高山/ 高山也摧毁他们/ 他们创造高山/ 高山也创造他们/ 在高山上人是孤独的/ 只有平地上才挤满炊烟/ 在高山中要有水兵的耐性/ 波浪不会平静 港口不会出现/ 一摇一晃之间/ 你已登上峰顶/ 或者堕入深渊/ 一辈子也望不见地平线/ 要看得远 就得向高处攀登/ 但在山峰你看见的仍旧是山峰/ 无数更高的山峰/ 你沉默了 只好又往前去/ 目的地不明/ 在云南有许多普通的男女/ 一生中到过许多雄伟的山峰/ 最后又埋在那些石头中” 于堅, 『于堅的詩』, 人民文學出版社, 2000, 332쪽. 12-13쪽.

“내 고향의 고산에는 강이 많이 있다 / 깊은 협곡 속에서 흐르며 / 하늘도 드문드문 보며 / 강에는 높은 큰돛도 없고 / 강갈매기떼를 불러오는 뱃노래도 없다 / 산과 골짜기를 넘으며 / 그대는 비로소 그 강의 소리를 들었다 / 큰나무로 지탱하는 뗏목을 타고 / 그대는 비로소 그 물결 위를 향해한다 / 사람들이 영원히 알 수 없는 지대가 있다 / 그곳의 자유는 매(鷹)의 것 / 장마철 강물은 더욱 포악스럽다 / 고원의 폭풍이 큰돌을 산골짜기로 내려 보내고 / 진흙이 강물을 붉게 물들이는데 / 마치 큰산이 흘러보내는 혈액 같다 / 조용히 있어야만 / 고원이 고동치는 혈관을 볼 수 있으리라 / 양쪽 강가에 사는 사람들은 / 아마도 영원히 얼굴을 만나지 못하겠지만 / 그대는 내 고향의 어떤 한 곳을 지나며 / 사람들은 이 강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을 것이다 / 그들의 하느님을 말하는 것처럼”<sup>20)</sup>(1983년)

이 시도 위의 시처럼 원난의 자연풍경에 대해 노래하고 있다. 높은 산이 있으면 자연히 그 산과 산 사이를 흐르는 강물도 존재하기 마련이다. 또한 강물을 위에서 아래서 막힘없이 도도히 흘러가며 인간의 마을을 휘감아 돌고 있다. 고향 마을의 강 풍경을 노래하며 자유스럽게 날아다니는 매의 풍경과 고향 마을 사람들의 얼굴 같은 강을 드러내 주고 있다. 이 속에서 살아가는 고향 사람들은 평생을 강과 함께 지내며 마치 몸속의 혈액 같은 강물을 품고 혈관 속을 흐르는 풍경을 마주한다. 강물은 마치 하느님을 말하는 것처럼 자연을 경외하는 고향 사람들의 정다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이러한 시적 인식 속에서 시인이 얼마나 고향의 높은 산과 강물을 생각하며 자신의 고향 자연 풍경을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자연에 대한 풍경 묘사를 통해 시인은 자연과 하나 되어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시인의 내적 염원을 이해할 수 있다.

20) “在我故鄉的高山中有許多河流/ 它們在很深的峽谷中流過/ 它們很少看見天空/ 在那些河面上沒有高揚的巨帆/ 也沒有船歌引來大群的江鷗/ 要翻過千山萬嶺/ 你才聽得見那河的聲音/ 要乘着大樹扎成的木筏/ 你才敢在那波濤上航行/ 有些地帶永遠沒有人會知道/ 那里的自由只屬於鷹/ 河水在雨季是粗暴的/ 高原的大風把巨石推下山谷/ 泥巴把河流染紅/ 眞像是大山流出來的血液/ 只有在寧靜中/ 人才看見高原鼓起的血管/ 住在河兩岸的人/ 也許永遠都不會見面/ 但你走到我故鄉的任何一個地方/ 都會聽見人們談論這些河/ 就像談到他們的“神”于堅, 『于堅的詩』, 人民文學出版社, 2000, 332쪽. 10-11쪽.

#### 4. 생태서사

1980년대 이래로 중국의 당대문학은 이른바 홍색문학에서 녹색문학으로 전환되었다. 그것은 과거의 혁명문학을 상징하던 홍색문학에서 인류 생존의 위기를 반영하며 환경 보호를 주장하는 녹색문학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녹색문학의 출현은 다름 아닌 자연 생태와 인류의 환경을 보존하려는 생태문학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중국 당대문학 속에서 녹색문학 또는 생태문학의 출현은 새로운 문학의 도래를 암시하고 있으며 새로운 전 지구적 차원의 환경 위기나 인류 생존의 위기를 내포하며 인간의 삶에 대한 성찰이 그 이면에 자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이래 세계 곳곳에서 “지구환경 문제 즉,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산성비, 사막화, 생물종의 감소, 열대우림의 감소, 해양오염과 자원고갈 등의 지구환경위기가 대두하여 종래와 같은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위기의식이 생겨난 것이다.”<sup>21)</sup> 최근의 중국문학 속에도 이러한 생태문학이 출현하며 인간과 자연의 조화롭고 평화로운 삶에 대한 지향은 인간과 문학, 그리고 자연생태의 조화로운 반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생태문학이란 개념과 용어 대해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하며 “문학생태학, 환경문학, 녹색문학, 생명문학, 생태지향시, 생명시, 생태환경시, 생태학적 서정시, 생태학적 문명시” 등 다양하게 사용하며 “생태계 위기의 시대에 생태문학이 무엇을 할 수 있으며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를 중요한 논의의 문제로 삼고 있다.<sup>22)</sup> 이에 생태문학은 “새로운 눈, 즉 생태학적 인식을 바탕으로 생태계의 제반 관계를 파악할 뿐 아니라 이러한

21) 한국환경사회학회 지음, 『우리 눈으로 보는 환경사회학』, 창비, 2004, 31쪽. 이 책 14쪽에서 우리말의 ‘환경’이란 개념은 영어의 environment라는 말로, 어원적으로 “어떤 사물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유기체를 둘러싼 물리적 환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이러한 물리적 환경과 비물리적 환경을 모두 포함하며”, “비물리적 환경은 우리가 흔히 사회적 환경이라고 부르는 것으로서 인구밀도, 경제활동의 유형, 문화적 특성, 사회제도 등의 사회문화적·경제적 조건을 말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22) 김용민 지음, 『생태문학』, 책세상, 2003, 80쪽.

경과를 가져온 뿌리를 찾는 작업도 함께 하는 문학을 말한다.”<sup>23)</sup> 그리하여 생태문학을 “생태전체주의 사상을 기초로 생태체계 전체의 이익을 가장 높은 가치로 삼아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고찰하고 표현하며 생태 위기의 사회 근원을 찾고자 하는 문학이며, 생태책임, 문명비판, 생태이상과 생태경고 등을 그 주요 특징으로 한다.”고 말할 수 있다.<sup>24)</sup> 최근의 생태문학 대표적인 작품으로 소설에서 한사오궁(韓少功)의 소설 『마교사전(馬橋詞典)』이나 수필 『산남수북(山南水北)』이 있으며, 츠쯔젠(遲子建)의 소설 『어얼구나강의 오른쪽(額爾古納河右岸)』 등도 있고, 대만의 롱잉타이(龍應臺)의 수필 「중국인이여, 당신은 왜 화를 내지 않는가(中國人, 你爲什麼不生氣)」도 있다. 반면에 시에서는 원난의 위젠의 생태시나 베이징의 왕자신의 생태시들이 있다. 소설에서는 2000년 가오싱젠(高行健)의 노벨문학상 수상작인 『영산(靈山)』에서는 중국 서북쪽의 팬더곰의 환경생태에 대한 보고서나 소수민족의 삶과 환경 파괴의 현장고발 등이 잘 나타나 있고, 한사오궁과 츠쯔젠의 소설 속에서 중국 소수민족 지역이나 산간지역 마을에서의 체험을 중심으로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삶에 대해 서술해 주며 생존환경 위기 속에서의 인류의 삶에 대한 미래를 제시해 주고 있다. 이러한 생태문학의 특징은 생태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생태시 역시 환경오염이나 자연 파괴, 물질문명의 폐해, 산업사회와 가부장제 사회의 문제점 등을 생태학적으로 인식하며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새롭게 모색하고 있다. 특히 시인의 자연친화적 삶이나 자연사물과 자연공간에 대한 인식을 통하여 시인의 생태의식의 면모를 이해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생태문학적 시각에서 위젠의 시문학 세계를 이해해 보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여겨진다. 그의 작품 세계 속에 나타난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통해 시인의 생태의식을 이해해 볼 수 있다.

“내 고향에서 /사람들은 전츠(滇池)를 바다라고 부른다 //젊은 사람들은

23) 김용민 지음, 『생태문학』, 책세상, 2003, 81쪽.

24) 王諾, 『歐美生態文學』, 北京大學出版社, 2003, 11쪽. 薛敬梅, 「自然情悔與家園之夢---于堅詩文生態意識闡釋」, 『雲南師範大學學報』, 2006년 9월, 제38권 제5기, 132쪽. 재인용



자주 무리 지어 해안가에 앉아 /기타를 치며 /“깊은 바다”를 부른다 /노래 부르지 않는 사람들은 /멍하니 전츠를 바라보며 /대해의 모습을 생각한다 /연애하는 남녀는 /햇빛 아래 반짝거리며 날아가는 물새를 바라보며 /저게 갈매기라고 말한다 //종전 국가의 작자도 /해변에 와서 거문고를 연습하며 /목마르면 전츠의 물을 마셨는데 /어느 날 그의 노래가 /바다 같은 많은 사람들에게 불리어질 것을 /그는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다 //고향의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 /전츠의 해변에서 꽃무늬돌을 주었는데 /한 세대 한 세대 사람들이 솟아올랐다가 물러가며 /전츠의 꽃무늬돌도 /영원히 다 주을 수 없었다 //어떤 사람은 수영을 배우고 /배 모는 것을 배우고 /나중에 먼 곳으로 가서 /운전에서 일한다 //선원을 했던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여전히 전츠를 바다라고 부른다“(1983년)<sup>25)</sup>

이 시는 위젠 시인의 생태서사를 살펴볼 수 있다는 대표적인 작품이다. 이 시는 위젠 고향의 호수 ‘전츠’를 시적 대상으로 삼아 서사적 이야기로 재구성하고 있다. 즉 고향의 호수 전츠를 둘러싼 고향 사람들의 과거 풍경과 현재의 풍경을 대비시키며 과거와 현재의 인식 차이를 드러내 주고 있다. 과거에는 전츠의 해안가에서 기타 치며 노래 부르며 사랑을 나누고 꽃무늬돌을 주었고 수영과 배 모는 기술을 배워 먼 곳으로 가서 선원으로 일했던 사람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다시 전츠를 바다 삼아 살아가고 있는 고향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서사적 방식으로 풀어주고 있다. 그래서 시에서는 특별히 시인의 주관적 감정이 최대한 배제된 채 객관적 사실 이야기로만 서사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하지만 이 시의 이면에는 과거와 현재의 전츠를 둘러싼 풍경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즉 과거에는 기타 치고 노래 부르며 물새 날던 아름다운 바다 같은 호수였지만 지금은 관광객들로 넘쳐나고 유람선들이 왕래하며 고향

25) “在我故鄉 /人們把滇池叫做海 //年輕人常常成群結伙坐在海岸 /彈着吉它 /唱“深深的海洋” /那些不唱的人 /呆呆地望着滇池 /想大海的樣子 /戀愛的男女 /望見陽光下閃過的水鳥 /就說那是海鷗 //從前國歌的作者 /也來海邊練琴 /渴了就喝滇池水 /他從來沒有想到 /有一天他的歌 /會被海一樣多的人唱着 //故鄉許多人小時候 /都在滇池邊揀邊花石頭 /一代一代人 /涌來又退去 /滇池的花石頭 /永遠也揀不完 //有的人還學會了游泳 /學會了駕船 /後來就到遠方去了 /在輪船上工作 //當過海員的人回到故鄉 /仍舊把滇池叫做大海”(1983年) 于堅, 『于堅的詩』, 人民文學出版社, 2000, 63-64쪽.

의 호수가 오염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고발하고 있다.

위젠은 1997년 1월에 장시 「哀瀕池」라는 작품을 다시 창작하여 전츠의 자연생태계가 파괴되어 가는 상황을 노래하며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삶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그는 이 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전츠 호수는 죽어가고 있다는 인식 속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이 시대에 일상의 생활은 죄를 지은 것처럼 /누가 야시장의 하수도에  
고발을 신청할 것인가? /지난 주말 위엔시루(圓西路) 여름 시장에 나온  
야채 사이에서 /마위(馬魚)의 냄새를 맡으며 생선 좌판의 칼로 /어둠이  
포장된 복부를 가르는데 /내가 멍하니 저녁 식사하는 사람들을 생  
각한다 /냉동된 생선은 소리를 들을 수 없고 /가지가 필요한지 소고기가  
필요한지 모르는데 /어떤 사람이 던지며 미치광이 보다 더 경악한다 //  
(생략) //죽음이여, 우리가 기대고 있는 우리 등 뒤에서 /모든 것을 받아  
들이는 그곳에 손을 대며 /영원은 결국 사형범처럼 /영원한 자의 대열 속  
에서 쓰러져 /이 죽음의 중간 속으로 떨어진다”<sup>26)</sup>

이러한 위젠의 생태의식은 그의 많은 시들 속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천쓰허는 위젠의 시 「햇빛 속의 종려나무(陽光下的棕櫚樹)」(1989.2.19.)와 「사건: 종려나무의 죽음(事件:棕櫚之死)」(1995.5.29.)이라는 시를 대비하며 생태서사의 문체를 서술하고 있다. 「햇빛 속의 종려나무」에서 “나는 저 초록의 손가락들을 보며 /봄물로 깨끗이 씻은 손가락이 되어 /대리석처럼 반들반들한 햇빛을 어루만지고 있다 /하얀 햇빛 높은 원기둥이 그들 사이에 우뚝 서 있듯이 / 그곳에서 높은 곳을 향해 솟아오르며 /젯빛 파란 온 하늘의 둥근 정상까지 오르며 펼친다 /그것들은 성지 순례자처럼 그것을 에두르며 그것에 접근한다 /

26) “在這個時代日常的生活几乎就等于罪行 /誰會對一個菜市場的下水道提出指控? /上周末在圓西路夏季上市的蔬菜之間 /嗅到一些馬魚的氣味猶如魚販的刀子 /割開了一個包藏着黑暗的腹部 /我呆立在構思着晚餐的人群里 /一條冰凍的魚聽不見了聲音 /要茄子還是牛排我不懂 /有人投過來只用于癩子的驚愕 // (생략) //死亡啊在我們所依靠着的在我們背後 /在接納着一切的那裡下手 /永恒竟然像一個死刑犯那樣 /從永恒者的隊列中跌下 /墜落到該死的那一群中間” 于堅, 『于堅的詩』, 人民文學出版社, 2000, 106, 114쪽.

하프를 타듯 나는 손가락이 떨고 있는 것을 본다 /그때 나는 종려나무를 볼 수 없었다 나는 단지 손가락만 볼 뿐 /가느다란 손가락 그리스식의 손가락 / 나를 어루만지며 /나의 영혼을 햇빛처럼 솟아오르게 한다”<sup>27)</sup>라고 노래하고 있다. 여기서 종려나무는 시인의 영혼이 되어 원난의 자연풍경을 쉽게 짐작하게 해 주지만 생명의 종려나무가 몇 년이 흐른 뒤에는 죽음으로 다가오게 된다. 하지만 약 6년이 지난 후의 「사건: 종려나무의 죽음」에서는 “찰나적으로 내 영혼에 구멍이 나서 하나의 단어가 나의 감각 속에서 부활한다 /아, 이것은 종려나무 한 그루”라고 노래한다.<sup>28)</sup> 하지만 이 속의 종려나무는 생존 환경의 위협 속에서 종말을 고하게 된다. 그것은 바로 쇼펡센터의 착공식날 톱날에 잘려지고 불도저에 파헤쳐지며 최후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

“새로운 쇼펡센터가 착공식을 하던 그날 /대표는 오색 테이프를 자르고  
군중은 둘러서서 구경을 하였지 /뜻사람의 눈이 지켜보는 가운데 일꾼은  
이 종려나무를 베어 넘겼네 /당시 나는 막 점심식사 중 밥을 다 먹고 시  
금치국을 마시며 /슬슬 졸음이 쏟아지던 차 우연히 언뜻 보고야 말았네  
/그것이 이미 파헤쳐져 지표면에 커다란 구멍이 나 있는 것을 /뿌리는 하  
늘을 향해 처져 있고 잃은 사망으로 흩어져 /이미 다른 목재와 달라 보이  
지 않았네 /뒤이어 다시 세 토막으로 톱질이 되었지 뿔나무로 쪼개기 쉽  
도록 /불도저를 몰아 잡석 한 무더기를 밀어 올리니 /구세계 최후의 유적  
을 메워버리는구나”<sup>29)</sup>

27) “我看見那些綠色的手指 /爲春天之水洗淨的手指 /在撫摩大理石一樣光滑的陽光 /白色的陽光 像高聳的圓柱在他們之間挺立 /并從那兒向高處上升 /直到整個藍色的穹頂都被撐開 /他們想朝聖者那樣環繞它 靠近它 /像是觸到豎琴 我看見那些手指在顫抖 /那時我看見棕櫚樹 我只看見一群手指 /修長的手指 希臘式的手指 /撫摩我 /使我的靈魂像陽光以上上升” 于堅, 『于堅的詩』, 人民文學出版社, 2000, 32쪽.

28) “一剎那我靈魂出竅 一個詞在我的感官中復活 /哦 這是一株棕櫚” 于堅, 『于堅的詩』, 人民文學出版社, 2000, 332쪽.

29) “那一天新的購物中心破土動工 領導剪彩 群眾圍觀 /在衆目睽睽之下 工人砍倒了這顆棕櫚 /當時我正在午餐 吃完了米飯 喝着菠菜湯 /睡意昏昏中 我偶然瞥見 它已被挖出來 地面上一个大坑 /它的根部翹向天空 叶子四散 已看不出它和木料的區別 /隨着又鋸成三段 以便進一步劈成燒材 /推土機開上去 拖起一堆雜石 /填掉了旧世紀最后的遺址” 于堅, 『于堅的詩』, 人民文學出版社, 2000, 337-338쪽.

문명 개발에 대한 인간의 욕망으로 인하여 종려나무 한 그루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시인은 밥을 먹고 시금치국을 마시며 졸음을 못 이겨 하는 일상의 자잘한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다. 어쩌면 한 그루의 나무보다도 인간의 일상의 욕망이 더 큰 일인 것처럼 무감각해지고 있는 자신을 보며 반성의 목소리를 담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당연히 인간이라면 이처럼 방관자적 태도를 지닐 게 아니라 더욱 적극적으로 현실에 개입해야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다. 한 그루의 나무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 그 자체가 되어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을 경외하고자 하는 시인의 현실인식의 소산이 된다. 이러한 종려나무의 죽음은 결국 인간 세계의 현대화로 인한 자연생태의 파괴를 알려주는 것이다. 이러한 시상의 전개 속에서 시인의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삶을 모색하고자 하는 생태의식의 근원을 찾아볼 수 있다.

## 5. 나오는 말

위젠 시가 속의 민간서사의 문제를 그의 대표작들을 통하여 대략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그의 시의 서사적 분위기는 위난의 일상생활에 대한 묘사와 위난의 자연풍경 노래, 인간과 자연 생태의 조화 등 세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그의 시는 몽룡시가 가졌던 지식인의 사회 역사적 상상력과는 거리가 멀게, 민간창작의 입장에서 지식인이 바라보는 일상생활에 대한 시적 서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민간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지식인의 시선을 통하여 민간의 일상생활을 시적 제재로 삼아 서사적 창작을 시도하고 있다. 무엇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볼 때 위젠이 쓰고 있는 것은 시대와 사회와 관련 있는 거대서사가 아니라 일상의 작은 이야기들을 묘사하는 미시서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같은 시적 전개를 통하여 그의 시는 새로운 선봉시의 주요한 모델이 되고 있으며 다른 시인들과는 다른 시적 경향을 보여주며

90년대 이후의 시의 주류를 이끌어 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위젠의 시세계를 조명하며 국내의 선봉시에 대한 관심과 함께 새로운 시가 미학을 통한 시적 전개를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 參考文獻

- 于 堅,『于堅的詩』,人民文學出版社,2000
- 于 堅,『在漫長的旅途中』,作家出版社,2008
- 于 堅,『彼何人斯:詩集 2007-2011』,重慶大學出版社,2013
- 于 堅,『我述說你所見---于堅集 1982-2012』,作家出版社,2013
- 于 堅,『36幅照片36首詩』,文達畫廊,2014
- 于 堅,『昆明記---我的故鄉,我的城市』,重慶大學出版社,2015
- 陳 超,『20世紀中國探索詩鑒賞(下)』,石家莊,河北人民出版社,1999
- 洪子誠·劉登翰,『中國當代新詩史』,신아사,2000
- 西 敏,「棕櫚之死:于堅創作的生態意識」,『作家』,2000년 5기.
- 洪子誠 主編,『在北大課堂讀詩』,長江文藝出版社,2002
- 程光燁 著,『中國當代詩歌史』,中國人民大學出版社,2003
- 林建法 徐連源 主編,『中國當代作家面面觀』,春風文藝出版社,2003
- 田 皓,「在沒有山崗的地方俯視世界---于堅詩歌的民間特徵」,『雲南師範大學學報』,제37권 제1기,2005년 1월
- 薛敬梅,「自然情悔與家園之夢---于堅詩文生態意識闡釋」,『雲南師範大學學報』,제38권 제5기,2006년 9월
- 洪 芳,「還原與超越:于堅詩歌的自然主題」,『甘肅聯合大學學報』,제22권 제4기,2006년 9월
- Jullian Shulman,「于堅:一個詩人的民間立場」,『青年作家』,2007년 8기
- 汪樹東,「爲大地而歌:生態意識與于堅詩歌」,『河北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제30권 제6기,2007년 11월
- 陳思和,『中國當代文學史』,문학동네,2008
- 陳增福 王晶雨,「論于堅詩歌中的生態意識」,『通化師範大學學報』,제30권 제1기,2009년 1월
- 林賢治 著,『中國新詩五十年』,瀋江出版社,2011
- 羅振亞,「論于堅的詩」,『中國現代文學研究叢刊』,2013년 8기

向天淵·趙玲, 「于堅詩歌研究綜述」, 『河北大學學報』, 제41권 제6기, 2014년 11  
월

김용만 지음, 『생태문학』, 책세상, 2003

한국환경사회학회 지음, 『우리 눈으로 보는 환경사회학』, 창비, 2004

Abstract

A Study on the Folk Narrative of Yu-Jian's Poems

Park, Nam-yong

This paper had studied the folk narrative issues appeared in the poems of Yu-Jian(于堅) who is the third generation poet in China. The world of Yu-jian's poems was very different from that of MengLong(蒙朧) poets who are the previous generation.

MengLong poets tried to do the intellectual writing from the viewpoint of a major narrative which put emphasis on history and society. However Yu-Jian tried to do the folk narrative writing about the nature and ecology of YunNan(雲南) based on the daily life of YunNan.

This paper had researched his folk narrative in three aspects which are everyday narrative, nature narrative and ecology narrative. He has been creating poems based on the trivial story of daily life occurring in the ordinary world of YunNan. From this, it was possible to observe his creation world concerning nature and ecology.

His poem not only had been shaped from the viewpoint of folk creation harmonizing everyday landscape and nature landscape of YunNan but also was expressed narratively making use of the tone of spoken language.

Consequently, it was generally assumed that the world of Yu-jian's poems had indicated not only the peculiar observation of poet which was lated to concrete everyday landscape, nature and ecology of YunNan but also the orientation and pursuit which was concerned with the harmonious life between human and nature.

Key words : Yu-Jian(于堅), the third generation, YunNan(雲南), folk narrative, everyday narrative, ecology narrative

투 고 일 : 2016. 9. 10. / 심 사 일 : 2016. 9. 15. ~ 2016. 10. 15. / 게재확정일 : 2016. 10. 16.